

성모 승천 대축일

제1독서 : 묵시록 11,19ㄱ;  
12,1-6ㄱ,10ㄱㄴ  
제2독서 : 고린도 1서  
15, 20-27ㄱ  
복 음 : 루가 1, 39-56

# 순정이

이 주일의 화답송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는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 “사는 게 사는 게 아녀.”



서정현 신부/줄포선교 성당

어느 시골 공소 미사 중에 한 할머니께서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고 이르시는 말씀, “사는 게 사는 게 아녀”. 이 말은 지금의 그분의 삶이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하게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할머니는 일찍이 가난한 지금의 시골 공소에 시집와서 어렵게 자녀들을 교육시켜 분가시키고 지금은 홀로 살면서 온종일 밭에 나가 퇴약벌 아래서 일하고 밤이면 삭신이 쭈시는 몸을 가누며 저녁기도를 바치는 분이십니다. 비록 외롭고 고통스런 나날이지만 일생을 주님만 믿고 그 분께 온 희망을 두면서 매일 “주께서 여종의 미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라는 마리아의 노래를 읊으십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요즘의 농촌의 모습은 비닐 하우스의 비닐이 온통 찢겨져 앙상한 갈비뼈처럼 철골이 드러나 있고, 바람에 떨어진 고추 수

확에 농부들은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이 거세게 불어 비닐이 전부 찢기던 날 한 형제는 그저 허허웃으며 한 잔 술로 쓰린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의 과잉 생산으로 값이 폭락하여 인건

비도 건지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애써 지은 농사이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확을 합니다.

농촌의 삶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두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모님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시며 그 분 몸소 우리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삶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도 굴복시키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극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참다운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하셨습니다.



여 명

#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김 인 봉(대건 안드레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지 50년 하고도 4년이 지났다. 삼천만 겨례가 하나 되어 만세를 부른 감격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일본 열도로 물러난 일제는 남북 분단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오타모토 미노루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제국의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해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다고 맹세하고 민족 해방 독립군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18년이나 나라를 다스렸고, 그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나 "흑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의지"로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 '역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명예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처삼촌과 힘을 합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에 있는 상황에서, 일제가 독립 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하여 만든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엄존하면서 남북한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통일일꾼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이웃 사촌을 자나깨나 감시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괴롭힌 댓가로 얻은 부와 권력을 물려받은 친일파 후손들이 명명거리며 살아가는 반면 독립 운동가들의 후예들은 단칸방에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상황

에서, 포장마차에서 어묵은 모르고 오뎅만 아는 상황에서, 봄이면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전군 도로가 막히고 심지어 질푸른 남강에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주는개념의 생가 들머리와 사당에도 벚꽃이 만발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과거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우리의 올바른 미래는 분단 극복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진정한 해방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행히 오늘은 11년전에 외세 축출,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민중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명동성당에서 봄꽃처럼 산화한 통일열사 조성만님의 추모비를 세우는 날이다.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이하여 캄캄한 바다를 건너는 배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바다의 별(海星)에 조성만 열사의 추모비를 세우는 것은 진정한 해방인 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과 힘을 굳건히 세우는 것으로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이다.

### 숲정이 산책



"성모님이 승천하셨으니 알렐루야!!"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7)

##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631-658항)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예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638항 참조). 그런데도 부활의 진리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다. "저게 상속자다.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루가 20, 14)라고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이 그렇다.

상속자는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외아들 예수이다. 예수께서는 당신 파견 사명에 충실하신 분이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선포하셨다.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분을 가리켜 하느님의 말씀 자체라고까지 하였다. 그분이 그토록 말씀에 충실하신 이유는 오직 하느님과 단절된 인간의 대화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사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단절된 대화가 곧 회복되는 듯했다.

하지만 악인들은 대화가 재개된다는 것이 무척 싫었다. 자신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대화의 재개로 이제 발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진리와 사랑의 말씀은 점점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악인들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이는 민중들에게 반가운 일이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음모를 꾸민다. '죽여 버리자. 기존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 저 자를 제거하자'.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거짓이 진리를 아무리 가로막더라도 진리가 완전히 패배한 적은 없다.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 힘있게 솟아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기"(히브 4, 12 참조)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바로 신경의 제5절 '예수 부활'에 암시되어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저승에 가시어": 저승(shool 혹은 hades)은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거쳐, 철저한 고독과 단절만이 지배하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킨다(633항 참조). 예수께서 이런 저승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악인들에 의해 말씀이 송두리채 제거되었다는 뜻이 결

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말씀은 고독만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살아 움직인다. 곧 저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은 그 어떤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셈이다. 나아가, 말씀은 그곳에서 죽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1베드 46), 힘센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까지 하신다. 곧 역사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위해 일하다가 힘센 자들에 의해 무고하게 죽은 이들을 죽음에 계속 묻혀두지 않고, 다시 역사 안으로 불러내시기 때문이다.

"사흘날에": 구약성서에서 제3일째 되는 날은 더 좋아지는 날, 구원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호세 6:2; 요나 2:1 참조). 곧 하느님께서 의인을 3일 이상 고통당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실과 권능을 드러낸다(648항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말씀을 끝까지 따른 결과 무죄하게 죽으신 의인 예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로써 하느님은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하느님"(로마 4, 17; 2고린 1, 9 참조)으로 정의된다. 이런 하느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입증하는 사건이다(651항 참조). 권력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처형을 당하신 분이 부활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무죄한 의인(사도 3:14-15 참조)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어둠에 짓눌려 억압을 당했던 구약의 가난한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으며(652항 참조).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다.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어둠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말씀은 우리 곁에 현존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 선포되기를 바라신다. 힘센 자들이 입을 막고 침묵을 강요하더라도, 계속 선포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말씀을 온 몸으로 선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655항 참조).

주님계시기에

# 주님은 청하기만 하면 들어주시지요.

검은색 지붕에 하얀 창틀에 예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신태인 성당 동막공소, 서로 닮은 집 모양 이상으로 이웃간의 정도 좋은 마을에서 13년째 공소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순학(마티아)형제님은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사시는 분이였다.

▶ 언제부터 이곳 동막에서 사셨는지요?

8.15 해방 직후 열 서너살 적에 부모님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5남 2녀)도 낳아 길렀지요.

▶ 동막공소는 생명농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6년전쯤 신태인 성당에 나궁열 신부님께서 계획적 교우촌인 이곳에 유기농생산물지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당시 신부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곳의 주작물인 참깨와 고추를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는 씻지 않고 먹는 것이라서 힘들긴 하지만 유기농 재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공소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힘드신 것은 없으신지요?

제가 공소회장을 한지가 13년째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교우들이 잘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가 있지요. 이곳은 오랫동안 교우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외지에서 이사온 비신자들도 2,3년만 지나면 신자가 되지요. 아마 교우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좋은 표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일이 바빠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형제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 기도생활도 열심히하신 걸로 압니다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청하기만 하면



꼭 들어주시는 것을 믿기에 자녀들에게도 늘 기도하며 살라고 가르치지요. 실제로 우리 집 사람이 무릎이 오랫동안 아팠을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은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몇 년째 계속해서 저녁 7시면 마을의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묵주기도와 저녁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농사일이 바쁘거나 몸이 아플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비가오나 눈이오나 한결같이 나오시는 외딴집 할머니 때문에도 저녁기도를 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녁기도는 우리 동막공소의 중요한 저녁일과가 되었습니다.

▶ 회장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특별한 바람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공소신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살기만을 기도하며 삽니다.

**원진도어, 현관문 생산처**  
 (고급현관문, 대문, 중문, 방화문)  
 노 승 환(스테파노)  
 배 일 순(아가다)  
 남원시 용정동 166(남원시 입구)  
 ☎ (0671) 625-8338, 영 633-8338  
 H · P 011-659-6944

**우 리 양 봉 산 업**  
 아카시아골 24kg 40,000원  
 로 알 제리 50kg 30,000원  
 <로알제리 주문 예약 받습니다>  
 김 길 전(바오로)  
 하 옥 선(가밀라)  
 ☎ (0671) 631-3736  
 019-337-3736

군산 유일의 향토 기업  
**A 마트**  
 고 성 실(실비아)  
 구암동 아시아나 불령장 옆  
 ☎ (0654) 442-5341

**백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 (0652) 253-2452 H · P 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 “정의를 향해 마음을 열라”

대희년 준비의 마지막 해인 이 “사랑의 해”에,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에 둔다. 교황 성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신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마태 11:5; 루가 7:22 참조) 오셨음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에 어찌 더 큰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토록 수많은 갈등과 참을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은 희년의 준비와 경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정신(25. 8-12 참조)으로 그리스도인들은 ……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제삼천년기」 51항).

교황 성하의 이 말씀은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에 대한 더 큰 강조
2.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
3.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임.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희년의 사람”으로 양성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이 “가서 희년이 되도록” 준비시킨다. 세 번째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곧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본당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통받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모든 본당의 사목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가톨릭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도와 교육의 활동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권리를 위하여 가정의 안팎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본당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희년 준비의 이 마지막 해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그렇다면 더 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본당 신자들이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 자신과 당신 본당의 신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떤 활동을 계획하려 하는가?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132일 남았습니다.

1999년 제1학기 가톨릭 신학원 성서부 학생모집과 개강 안내

#### 1. <성서교실>반

- 자격 :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졸업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 8월 26일 ~ 수시접수
- 수업일과 시간 : 매주 목요일 낮 반 - 오전 10시~12시 저녁반 - 오후 7시~9시
- 개강일과 개강미사 : 8월 26일(목) 오전 9시에 개강미사가 있습니다.

#### 2. <말씀나눔>반

- 자격 : 성서교실반을 졸업한 분들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 8월 30일 ~ 수시 접수
- 수업일과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 개강일과 개강미사 : 8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개강미사가 있습니다.

- 접수처 : 신학원(윤호관내) 행정실
- 전 화 : (0652) 256-2655(행정실) / 255-2677~8(관리실)
- 등록금 : 2학기 5만원(5개월)

### 요십이 (1358) 김병오



#### 성 소 모 임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일시 : 8월 22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사랑진본원  
 문의 : (0527) 352-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 입찰 공고

추석을 맞이하여 소리개제 천주교 묘지의 별초작업을 맡아 해보실분은 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 제출마감 : 8월 21일(토)
- 접수처 및 문의처 : 중앙성당 사무실 ☎ (0652) 277-1711

전주지구 묘지관리 위원회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 클릭 세비스심부름 흥길동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로 흥길동을 찾으세요  
노정님(아네스)  
☎ (0652) 232-0999  
H·P 019-663-0292

### 삼성라디오테라 전북대리점

자동차 라디오테라, 히터, 도스메, 에어컨, 콘센트, 수리제작  
중장비, 오일 냉각기, 팬

전주점 양순복(투갈다)  
☎ (0652) 212-8255/7342  
군산점 안해숙(아델라)  
☎ (0654) 445-7342  
011-654-3488

### 토탈 패션 I M A+

영계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물  
김문식(베드로)  
심점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 임실 동충화초 연구소

항중양 면역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장 김형 권필립보  
☎ 임실 (0673) 644-7334-5  
전주 (0652) 213-4131-2

삼 속 에 서

동막공소를 다녀와서



고 영 주(요안나)/ 호성동 성당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찌뿌듯하다. 부산을 떨며 허둥지둥 성당에 도착하여 감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좋은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창조의 신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구역부 피정에 참석하려 하오니 저희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차에 오르니 낮익은 자매님들의 표정이 화기에 애하다. 차창 밖으로 푸르른 자연이 시야에 들어오고 잘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보면서 자연과 호흡하며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농부의 노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신태인 성당소속 동막공소에 도착하였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환한 웃음으로 반기는 공소 회장님의 표정은 기쁨으로 충만된 모습이었다. 이곳 동막은 전체가 천주교 신자인 우리 농 마을로서 고추가 주 작물인 공동체라는 소개를 듣고 오전강의는 농민사목을 전담하는 광주교구의 최민석 신부님의 생태계영성에 대해 들었다.

하느님이 주신 대자연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는 생명의 신비 체험을 맛보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감각이 열리며 생명의 축제가 온 천지에 열려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지난 봄 고창 선운사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도 하느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소담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 하얀 민들레의 생명력이, 항상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자기도취, 이기심 등 남을 닮으며 살아가는 나에게 꾸지람으로 다가왔던 큰 감동을 떠올렸다.

점심시간에, 공소신자들이 손수 키운 먹거리로 마련해주신 밥상을 대하고 보니 동막공동체의 형제애와 결속력을 보는 듯 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사랑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식사를 마치고

유기농으로 잘 가꾸어 놓은 고추밭을 둘러보았다. 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탐스럽게 열린 고추를 보며 농민들의 노력과 하느님이 주신 땅, 태양, 공기, 비 등 우주와 자연의 신비속에 잠시 머무를 수 있었다.

오후에는 귀농운동 본부장과 우리농 전국본부 사무총장의 생태계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 우리 농촌 살리기-도농 공동체 운동 강의까지 듣고 나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했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있음은 큰 잘못이라 깨달았다.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숨쉬고 물 마시고 밥먹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만물의 조화로운 협력과 노력의 결과임을 머리속에 깊이 각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생태계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하루에 150~200 종류가 사라져 가고 있다니... 엄청난 생명의 파괴에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이 앞선다. 지금부터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먼저"로 생각을 바꾸어 약하지만 작은 실천의 결심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하여 본다.

도농 공동체 실천운동도 단순히 값싸고 질 좋은 먹거리를 얻기 위한 직거래 운동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삶으로 바뀔 때 차츰 생태계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던 강사님의 열변이 뇌리를 스친다.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의식을 깨어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자던 주교님 말씀이 머리에 되새기게 되었다.

주식매매 및 신규투자상담

금융상품 · 뮤추얼펀드 · 채권  
신협 · 성당 자산 운용상담  
차장 박 정 일(라우렌시오)  
☎ (0652) 288-0011(대)  
288-1252(直)  
H · P016-233-4668  
(대우증권 전주지점 - 시청역)

서도 삼의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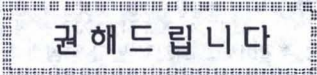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연세),  
디지틀 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 중고고가 매입 및 보상 판매  
· 장기할부 및 단기 무이자 판매  
· 약기연주 지도상담(음악학원  
운영경력 20년)  
양 노 실(허상 바오로)  
효자동 현대④앞 서도 프라자 2층  
☎ (0652) 225-5252/223-5332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금강치과 의원

교통좋은 역전으로 이전개원  
12년간의 경험과 신장비로 모십니다  
원장(치의학 박사) 진 국 범  
부 진 성 구(안드레아)  
익산역→원대방향 30m인켈 2층  
역전 주차장 이용바람  
☎ (0653) 853-6633



◆ 사회교정사목 전주 월레미사  
 · 때 : 8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청년성서 창세기 학생모집  
 · 때 : 9월 둘째주 해당요일부터  
 · 수강료 : 없음  
 · 접수 : 교구청 청소년 교육국  
 ☎ (0652)285-0041  
 이 요한나 수녀

◆ 교구신학생, 꾸리아 사제  
 등반대회  
 · 때 : 8월 16일(월)  
 · 장소 : 순창 강천사

◆ 제5기 자원봉사자학교 안내  
 · 교육기간 : 9월 6일~11월 8일  
 (총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 교육대상 :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모든 성인(종파 초월)  
 · 장 소 : 전동 천주교회 교육관  
 (전주시 완산구 전동 200-1)  
 ☎ 0652) 284-3222)  
 · 교육비 : 30,000원  
 · 접수 및 문의 : 8월 31일까지  
 교구 사회사목국 ☎ 0652)284-5290  
 FAX 284-4855

◆ 청년성서 연수회  
 · 때 : 8월 18일(수)~20일(금)  
 · 장소 : 수류 청소년 야영장

◆ 푸른군대 일일피정  
 · 때 : 8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덕진성당

◆ 가르멜 재속회 월례피정  
 · 때 : 8월 22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용머리 성당, 미사있음

안심하고 가거라

루단 윌리엄스/216쪽/5,500원

신의 존재의미를  
 찾으며 갈등과 방  
 황을 거듭하는 현  
 대인들에게 성서  
 속의 여인들을 통  
 하여 그 답을 주  
 며 치유자이신 예  
 수님을 만나게 해  
 준다.



마리아의 노래

56분/카세트 4,000원/CD 8,000원

'당신의 입술에 늘 마리아를 떠올  
 리십시오. 그분이 그대를 인도하시  
 기에 그대는 지  
 치지 않을 것입  
 니다.' 우리의 어  
 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노  
 래한 성모님 노  
 래 모음집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살례시오 여자수도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533-2578
성바로로딸수도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52)252-3398	예수 성심 전교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 성당 수녀원	(0652)226-3487
전교 가르멜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274-9262	인 보 성 체 수도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284-3231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244-0094	곤베뚜알프란치스코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 2) 793-2070
샬트르성바로로수도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858-4724	살례시오 수도회(남자)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62)512-0332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성당 수녀원	(0652)284-2276	사랑의 씨앗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성당 수녀원	(0652)281-0441
동정성모회(전주이리)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성당 수녀원	(0652)232-5004	까리다스 수녀회	둘째주일 오전 10시 30분	광 주 본 원	(062)672-6780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쿨 : 160,000원  
 · 욕,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작용후 3일 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닻터」  
 김 중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자성당 옆  
 창 의 메디칼 ☎ (0652)282-1610-1

**대 한 상 사**  
 주택중개측 보수, 페인트 공사 전문  
 특수방수, 보일러설비, 샷슈 도배  
 김 의 화(요셉)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62-39  
 ☎ (0652)252-4874, (0652)277-6522  
 호 출 : 012-684-2658  
 핸드폰 : 011-680-4874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0652) 288-7717-8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중(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285-3061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포도즙, 양파즙, 붕어즙 산지직송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려드립니다  
**롯데건강원**  
 최 참 림(토마스)  
 박 정 희(모니카)  
 효자동 롯데A 상가 내 1층  
 ☎ (0652) 225-4319

수입상품 전문점  
**보물창고**  
 주방용품, 생활용품, 선물용품  
 김 절 수(베드로)  
 이 남 레(엘리사벳)  
 동산동 하나 쇼핑상가 앞  
 ☎ (0652) 211-3053

#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신부 박 찬 율 김 준 우  
 보좌신부 252-0383 수 녀 원 272-5304 보좌신부 박 찬 율 김 준 우  
 F A X 271-1937 유 치 팀 252-0384 사목회장 이 준 우

- ◎ 주일미사에 빠지지 말고 정성껏 참여하십시오
- ◎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이며, 페루 선교사 지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 ①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주일 - 미사전후  
 ② 성모회, 성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 대진회 - 교중미사 후
2. 금주미사 안내 : 17일(화) - 10시 미사, 18일(수) - 새벽미사  
 \*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3. 7월 세례자 첫 고해성사 : 26일(목) 저녁미사 후
4. 연중 봉헌금(교무금) 월납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5. 감사 헌금 : 박영옥 2만원, 양형란 2만원, 정진호 3만원
6. 금주 전례 : 해설 - 강주섭, 독서 - 김진우, 허옥주  
 봉헌 - 덕진 34만
7. 차주 전례 : 해설 - 오효정, 독서 - 김용운, 소남이  
 봉헌 - 덕진 35만
8. 금주 청소 : 21일(토) 후 2시, 작은 형제회, 성모성심 Pr.
9. 차주 청소 : 28일(토) 후 2시, 대진회, 사랑하울 모친 Pr.
- 지난주 봉헌금 : 1,709,800원 □ 교무금 : 4,060,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 무 실 212-3231 주임신부 김 진 화  
 F A X 212-3722 수 녀 원 212-3233 사목회장 최 승 호

- ◎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페루 선교사 지원 2차 헌금이 있음
- ◎ 오늘은 좀더리 쌀 모으는 날 : 한중씩 살모아 성체성사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어진 방안에 계십니다

1. 오늘 모임 : 빈첸시오, 증고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 ① 모이세회 - 16일(월) 후 8시  
 ② 요셉회 - 19일(목) 후 6시 30분
3. 차주 모임 : 애령회, 제대회, 구역(반)장 회의 - 공식미사 후
4. 병자 봉성체 : 19일(목)
5. 사무장 휴가 : 16일(월)~18일(수)
6. 감사 헌금 : 익명 - 1백만원, 허광운 - 20만원, 유인기 - 10만원
7. 시재관, 수녀원 신축헌금 : 이관경 20만, 김명자 10만, 신경선 6만,  
 이강현 5만, 오옥순 4만, 누계 - 7,924원
8. 청소년 안내 : 금주 - 죄인의 의탁 Pr., 차주 - 증거자의 모후 Pr.
9. 금주 전례 : 해설 - 김영수, 독서 - 김호중, 임금자  
 봉헌 - 이의준, 한명자
10. 차주 전례 : 해설 - 김현식, 독서 - 김삼기, 정효남  
 봉헌 - 손순택, 노경례
- 지난주 봉헌금 : 971,460원 □ 교무금 : 925,000원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 무 실 291-2018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91-2018 수 녀 원 291-3196 사목회장 장 영 만

1. 금주 모임 :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회 - 후 2시  
 ③ 사목회 - 후 8시
2. 차주 모임 : ① 승리의 여왕, 셋별 꾸리아 - 후 8시  
 ② 애령회 - 공식미사 후  
 ③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④ 성체회 - 마지막 금요일 미사 후
3. 교적을 정리합니다 : 각 세대별 한분씩 꼭 확인바랍니다
4. 감사 헌금 : 최규복(치밀라) 2만, 유 안투사 - 3만, 박 잔디다 - 5만  
 정진문(안드레아) 5만, 익명 - 5만
5. 차주 청소 : 방촌, 비비정
6. 금주 전례 : 특전미사 해설 - 김세현, 독서 - 서승민, 문순자  
 공식미사 해설 - 이원규, 독서 - 최경식, 한홍순  
 제물봉헌 - 서정만 부부
7. 차주 전례 : 특전미사 해설 - 윤천수, 독서 - 이재구, 김순주  
 공식미사 해설 - 최숙경, 독서 - 최경호, 최은경  
 제물봉헌 - 최동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780,300원 □ 교무금 : 560,000원

**송천1동** 주임신부 254-2778 사 무 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 이 진 호

- ◎ 오늘은 페루 선교사 돕기 2차헌금과 본당 성소후원회원 가입 및 회비납부 주일입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안나회 - 15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안젤라 봉사 - 16일(월)  
 ③ 제대회 - 17일(화) 10시  
 ④ 울뜨레야 - 17일(화) 저녁미사 후
- 2. 전당리 공소미사 : 18일(수) 후 8시
- 3. 축! 꾸르실료 스타 탄생 : 김명자(실비아), 정명옥(로사)  
 최해경(로사), 조용숙(레아) ※ 축하합니다
- 4. 첫 영성체 교리 : 16일부터 전 10시~12시 ※ 첫 영성체는 29일
- 5.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한미경(말지나) - 현대 3차아파트
- 6. 각 구역에서는 전입자와 쉬는 교우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 무 실 291-0832 주임신부 한 병 헌  
 수 녀 원 291-0833 유채(백산공소) 291-1520 사목회장 이재갑

- ◎ 축! 성모승천 대축일
- 1. 성전신축 기금 : 익명 5만, 권미경(테레사) 50만  
 주계 - 55만, 총계 - 479,452,294원
- 2. 경노잔치 잔조금 : 애령회 20만, 안나회, 요셉회 각 10만  
 신부님, 복되신 동정녀회, 사목회장, 권이중, 박필근, 손형철  
 김복숙, 김동진 각 5만, 이상섭, 강신일 각 3만, 정상배, 소병길  
 김요한, 김윤호 각 2만, 강신준 1만, 신태석 쌀 10kg, 참쌀 4kg  
 김수덕(수산나) 마늘 1책, 강신철 찰쌀 8kg, 윤병훈 쌀 5kg  
 양념류(고추, 콩, 부추, 깻잎)
- 3. 청년회 단합대회 : 21일~22일 4. 사목회 단합대회 : 22일
- 5. 오늘은 페루 선교사 지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6. 애령회 : 19일(목) 후 8시 7. 차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
- 8. 감사 헌금 : 익명 3만, 이상섭 5만, 이윤정 3만, 김복동 10만  
 \* 감사합니다
- 9. 금주 전례 : 해설 - 강신준, 저녁 - 김미란  
 독서 - 이종준, 정중근, 강영숙, 제물 - 김복동 부부
- 10. 차주 전례 : 해설 - 이상섭, 저녁 - 이미란  
 독서 - 김동진, 이금민 이용례, 제물 - 이기우 부부
- 11. 성당 청소 : 21일(토) 가난한 이의 모후, 복되신 동정녀 Pr.
- 지난주 봉헌금 : 569,500원 □ 교무금 : 630,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 무 실 274-1004 주임신부 한 기 호  
 보좌신부 254-8561 수 녀 원 254-1142 보좌신부 유 진 영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 춘 식

- ◎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 1. 사목회 : 17일(화) 후 8시 \* 사목회 임원께서는 꼭 참석 바랍니다
- 2. 전입을 환영합니다 : 정재명(야고버) - 광주 남동  
 원기곤(마티아) - 서울 대림동, 이경노(돈보스코) - 군중 전진  
 장병운(플라치도) - 금암동, 유선희(수산나) - 서울 공덕동
- 3. 지붕 및 선진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뢰하신 선진보수공사비  
 속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수금 4,500,000원
- 4.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오늘은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6. 병자 봉성체 : 25일(수) 후 2시 \* 2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7. 금주 본당청소 : 4구역 - 21일(토) 전 10시
- 8. 금주 전례 : 해설 - 손순식, 독서, 봉헌 - 3구역
- 9. 차주 전례 : 해설 - 이정봉, 독서, 봉헌 - 4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435,110원 □ 교무금 : 1,360,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 무 실 252-7366 주임신부 김 병 훈  
 보좌신부 252-1606 수 녀 원 252-9567 보좌신부 김 인 선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 인 선

- ◎ 예비신자를 모집합니다 : 예비신자 교리시작 - 9월 첫주
- 1. 금주 모임 : 구세주의 모후, 능하신 동정녀 Cu. - 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 M.E 모임 - 공식미사 후
- 3. 부녀회, 제대회, 자모회 : 17일(화) 전 10시
- 4. 병자봉성체 : 18일(수)
- 5. 사목회 : 20일(금) 후 8시
- 6. 천마리아 수녀님 휴가 : 16일(월)~25일(수)
- 7. 감사 헌금 : 문홍순 197,000원
- 8.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 하운구 (20만), 김태수, 김희주, 익명  
 김종관 (각 10만), 정영덕(5만), 계 41,996,500원  
 남은 부채(신협) 21,000,000원 \* 전신자가 다 참여합니다
- 9. 다음주 본당청소 : 1구역 5만
- 10. 미사안내 : 바다의 별 Pr.
- 11. 금주 전례 : 해설 - 이원엽(유스티노), 독서 - 김인선, 윤순자
- 12. 차주 전례 : 해설 - 김태규(유스티노), 독서 - 조성영, 김은숙

□ 지난주 봉헌금 : 1,475,080원 □ 교무금 : 1,780,000원

7. 감사 헌금 : 김주철(프란치스코) 5만원  
 비품비 - 정영모(안드레아) 10만원  
 최영호(미카엘) 복사기 1대 기증 \* 감사합니다
5. 금주 전례 : 김의식(베네딕도)
6. 차주 전례 : 이창복(안토니오)
7. 금주 청소 : 1구역(신동 비사별 아파트) 토요일 전 10시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 45)

□ 지난주 봉헌금 : 1,189,000원 □ 교무금 : 790,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